

[단독]SK와이번스 야구단, 신세계 이마트에 팔린다

장상진 기자

업데이트 2021.01.26. 10:31 ▼

신세계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를 인수한다.

이마트와 SK텔레콤은 25일 “SK텔레콤과 신세계그룹은 프로야구를 비롯한 한국 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SK와이번스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이르면 26일 SK텔레콤과 이마트 간에 야구단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평소에도 야구단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유통과 스포츠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SK 와이번스 야구단이 신세계 이마트에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와이번스 페이스북

SK는 2000년 쌍방울 구단을 인수해 창단했다. 지금까지 한국시리즈에서 4회 우승을 하며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SK 와이번스 선수들이 2018년 11월 12일 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13회까지 가는 혈투 끝에 5-4 승리해 우승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마트의 야구단 인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라는 해석이 재계에선 나온다. 정 부회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임직원들에게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경쟁 대상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아니라 야구장과 테마파크”라고 수차례 말했다.

그는 2016년 스타필드하남 개장 당시 “고객들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을 찾아가 오랜 시간 머물며 상품만 아니라 ‘가치’를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스타필드’라는 이름 자체도 정 부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스타’에는 ‘모두에게 사랑 받는다’는 의미를, ‘필드’(운동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놀 수 있는 마당’이란 의미를 각각 담았다는 것이다. 이마트가 2019년부터 경기 화성에 짓고 있는 국제테마파크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유통 매장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체험’과 ‘오락’의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다.



장상진 기자 편집국 산업부 기자